

모든 성인병중 당뇨병 관리가 왜 우선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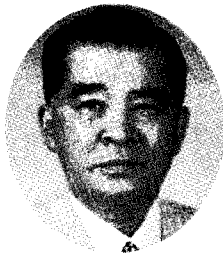
오늘날의 이 시대를 질병사적 시각에서는 흔히들 “성인병 시대(成人病時代)”라고 규정짓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만성퇴행성질병(慢性退行性疾病)시대 또는 유병장수화(有病長壽化)시대라고도 부른다.

질병발생의 유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인종과 종족에 따라 다르며 또한 음식문화·여가선용·노동조건 등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 한세대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 작업과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에 힘입어 이제는 빈곤(貧困)과 무지(無知) 및 불결(不潔)의 소산이었던 전근대적 급·만성 전염병 시대는 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과영양, 과로, 스트레스 및 산업문명의 소산인 성인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사인(死因)별 조사통계에



이 두 호

본협회 회장
보건학박사

의하면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간암·폐암·위장암 등 각종 암(癌)이 단연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등 소위 5대(大) 만성, 퇴행성 질환이 전형적인 성인병으로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들 중 당뇨병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더불어 다시 3대(大) 「원인적·핵심 질환(原因的·核心 疾患)」으로 보건

당국의 중점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당뇨병은 병이 아니다.

적어도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 소위 당뇨병의 3대(大)요법을 제대로만 구사하여 신부전증, 망막증, 혈관질환 등 소위 당뇨병의 3대(大) 합병증을 비롯한 각종 고질적이고도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도록 한다면 ‘당뇨’ 그 자체만으로는 별 대수로운 질병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의 한 권위있는 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인구의 10.1%가 당뇨병 환자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아직 미확인·비관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비록 확인은 되었더라도 대부분의 환자 자신들이 비과학적 민간요법이나 풍문(風聞) 처방에 의존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돈은 돈대로 탕진하고 병세는 더욱 더 악화되어 중국에 가서는 불치의 합병증으로 발전하여 서서히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뇨병의 각종 합병증은 참으로 무서운 고질적 질환이다.

신부전증의 경우에는 1일 4~6회의 복막투석이나 주 2~3회의 혈액투석을 거쳐 끝내는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며, 망막증의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나 시력은 그 이전보다 훨씬 감퇴되고 때로는 실명(失明)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밖에 각종 혈관질환으로 발가락 등 하각(下脚)부위를 끊거나 각종 피부병을 앓게 되는 등 이들 합병증은 중국에 가서는 신체의 전 기능을 쇠락·파멸 시켜 중국적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된다.

이렇듯 당뇨병은 일찍이 발견하여 제대로만 관리한다면 병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들 보다도 더 오래도록 천수(天壽)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시기를 놓치거나 비과학적인 자의적 관리로 끝내는 고질화되어 치명적인 사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당뇨병이야말로 처음에는 호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서는 가래로도 못막는 격의 질병인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당뇨협회는 우선 현단계에

있어서는

1) 무료공개강좌의 정기 또는 수시 개최, 무료상담소의 설치·운영, 당뇨관리 전문지의 정기 간행 및 관련 학회와의 세미나 또는 워크샵 등의 공동개최 등으로 모든 당뇨인들로 하여금 전문 의료인들의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도록 인도하고,

2) 당뇨인들간의 산악회·좌담회 및 성인 또는 소아당뇨캠프 등의 정기 또는 수시개최 등으로 동병상련의 친목활동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도 지혜로운 자기관리(自己管理)의 기법을 터득케 하며,

앞으로 더 나아가 불원장대에 재정적 뒷받침이 허락한다면

1) 무의촌·오백지의 신(新)환자 조기발견 사업

2) 생활보호대상자 등 빈곤당뇨인의 자기 관리 지원사업

3)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병원 사이의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제3의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동시에

4) 국내외적인 관련 학회 등과의 유대강화로 세계 최첨단의 새로운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중국에 가서는 당뇨인 개개인의 보다 효과적인 자기관리는 물론 총체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여기 대학로 한복판에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1995. 7. 22 협회 간판을 내걸면서.

((사)한국당뇨협회 설립취지문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49 동숭빌딩 4층

TEL : (02)743-9482~3 FAX : (02)745-0349